

# “힐링산업은 시대정신...농도 전남의 블루오션”



힐링투어 등 5개 테마로 165개사 311부스 1만5천명 방문  
광주일보·힐링산업협·이즈월드와이드 주최 ‘힐링페어2018’ 성료



6월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는 나만의 힐링 방법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1층에선 명상과 요가로 심신 피로를 풀고, 3층에선 차와 유기농 건강식품을 맛봤다. 한쪽에서는 스파·바디케어 등 힐링뷰티와 힐링클리닉으로 유혹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매력적인 힐링투어를 안내했다. 세미나실에서는 치유농업 심포지엄과 원예치료 워크숍, 힐링 전도사 이시형 박사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 유일 힐링박람회인 ‘힐링페어 2018’이 지난 6~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렸다. <사진> 광주일보사와 (재)힐링산업협회, 전시기획전문기업 ㈜이즈월드와이드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제주도, 충청관광청, 한국문화정보원, 농협하나로유통, 현대백화점 등 모두 165개 기관·업체가 참가해 311개 부스를 운영했다. 관람객은 사흘간 1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이제화 힐링산업협회장은 ‘힐링페어 2018’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미래동력은 힐링”이라며 “개인을 넘어 집단,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K-힐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10년 후를 내다보면 대박산업이 될 것”이라며 “한·중·일 포럼 개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이계호 국회의원은 “힐링산업은 시대정신”이라며 “힐링은

농도 전남의 블루오션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농업·농촌은 생산·환경·복지 등 종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경제적 방안을 힐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관광·레크리에이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며 농촌으로 초대했다.

그는 이어 “힐링산업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힐링 프로그램의 선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와 노력을 병행한다면 뜻 깊은 K-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힐링브랜드·힐링라이프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힐링푸드, 힐링뷰티, 힐링플레이, 힐링시티&투어, 힐링리빙 등 산업별 힐링으로 특화된 5가지 전시 테마존(Zone)으로 구성돼 힐링 관련 모든 분야 상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세계적인 이벤트가 동시에 열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세계적인 차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캐나다의 ‘ITEI’(Int'l TEA Education Institute) 한국캠퍼스와 힐링페어는 ‘ITEI 티마스터 챔피언십’을 공동 개최, 힐링의 대표적 상품인 차(티·TEA)를 보다 흥미롭고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블랜딩 티 무료 시음회’도 진행했다.

아시아 최초로 ‘요가 저널라이브’도 선보였다. ‘요가 저널라이브’는 미국 요가저널 본사가 미국지역(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는 세계적인 요가 이벤트로, 국내외 유명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20~30대를 위한 힐링의 솔루션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서울=박정욱기자 jwpark@

## “4차 혁명시대 과학적 힐링 필요”

### 뇌과학자 이시형 박사 특강

우리나라 대표 뇌과학자 이시형 박사는 휴식을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다.

이 박사는 지난 6일 열린 힐링페어 특강과 저서에서 “뇌 피로는 뇌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이를 방지하면 생활습관병으로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뇌에서 비롯되는 만큼 뇌는 새로운 도전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운명”이라며 “과학적인 힐링과 뇌의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요즘 사람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

도 잠생각과 근심 걱정·불안감이 시달린다. 심지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고 하소연한다”며 “원인은 육체의 피로가 아닌 뇌피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뇌피로를 풀지 않는 한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뇌피로연구회에서 개발한 ‘뇌 피로도 주관적 측정표’를 통해 자신의 피로도를 측정할 뒤, ‘휴식혁명을 위한 스위치를 켜라’고 조언했다.

이 박사는 뇌는 뇌만의 회복법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뇌 회복법으로 ▲첫잠 90분 깊게 자기 ▲하루 닭가슴살 반쪽 섭취 ▲운동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명상호흡 ▲공정 리셋 등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메디웰 광주’·‘남도 한바퀴’로 힐링하세요



이계호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힐링페어 2018’ 특별전시관인 ‘전라도 천년관’ 영광찰보리사업단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라도 천년관’ 시선 집중

‘힐링페어 2018’에서는 ‘전라도 천년관’이 눈에 띄었다. 전라도 천년과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된 ‘전라도 힐링 특별전시관’이다.

‘전라도 천년관’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강진군, 고흥군, 영광군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웰니스 의료관광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시는 ‘메디웰 광주’를 전시했다. 템플스테이, 스파, 1913송정역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메디웰 광주를 소개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들의 외국인환자를 위한 선진 의료서비스를 강조했다. 산·학·연·관 협력으로 구축된 광주메디투어센터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상담 및 예약에서 개인별 맞춤형 검진, 진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의 사후 관리도 꼼꼼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를 알렸다.

20개 노선으로 운영되는 남도한바퀴는 이용요금이 9900원으로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올해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활용한 해양관광,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테마여행,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한 전북 연계 코스 등을 새로 선보였다.

이 곳에서는 보성차 시음과 보성차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방문객들은 전통문양에 녹차를 절구에 찧어 준비한 질펀한 녹차를 동전모양의 틀에 꺾죽 늘

### 메디웰 광주

템플스테이·스파·1913송정역시장·문화전당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선진 의료서비스

### 남도 한바퀴

강진 FUSO 농촌 체험·20~30대 테마여행 등

특산물·힐링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발길 사로잡아



‘전라도 천년관’에 참가한 고흥군과 강진군.

러 ‘떡차(전차) 만들기’를 체험했다. 떡차는 5년이상 자연 숙성한 보성 전통차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녹차로

만든 누룽지도 선보였다. 영광군은 영광에서 재배되는 찰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놨다.

찰보리 쌀과자, 찰보리 냉식혜, 보리순차, 모시찰보리 찜떡과 찰보리빵 등 영광찰보리 특산품을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영광찰보리 제품을 발표한 증류식 소주인 ‘독한잔소주’, 영광찰보리와 쌀을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빚은 ‘보리막걸리’, 부드럽고 쫄득한 찰보리 식감과 통팔양금의 고소함이 일품인 ‘찰보리떡볶이’, 유래가 목장의 신선한 원유에 영광 새싹보리 분말을 첨가해 만든 ‘새싹보리요구르트’, 친환경 미르목장에서 찰보리를 먹인 찰소의 원유로 만든 수제치즈인 ‘참살이 스트림치즈’ 등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고흥군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린다. 득량만 등 청정바다에서 건져올린 김·다시마·미역 등 수산물과 온난화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유자·석류 등 특산품이 가득했다.

강진군은 ‘푸소로 힐링하자’며 푸소(FUSO)를 테마로 꾸렸다. 푸소체럼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로, 농촌 집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농가와 함께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물의 고장에서 힐링 타임’을 내건 장흥군, 대나무수금으로 만든 죽향 재래김과 대바구니·참빛·도마 등 죽제품을 선보인 ‘죽향’ 담양군, ‘청정 바다수도’ 완도군은 갖가지 특산물과 힐링 프로그램을 소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 연회장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